

한일관계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과제-

1. 일본경제의 개요

년도	GDP 성장 률(%)	1인당 GDP (U \$)	무역 [억엔(¥)]		대외준 비 (억\$)	대미 달러환율 ¥/\$ (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실업률 (%)	노동 생산성 (%)	금리 (%)
			수출	수입						
1997	1.8	34244	420957	338754	2208	129.94	1.8	3.4	4.8	0.50
1998	-1.1	31164	387927	280484	2159	115.20	0.6	4.1	-4.1	0.50
1999	0.1	35518	419367	311262	2881	102.04	0.3	4.7	2.9	0.50
2000	2.8	37600	479249	379511	3616	114.87	0.7	4.7	6.1	0.50
2001	0.4	32766	403496	349089	4020	131.50	0.7	5.0	-4.8	0.10
2002	-0.3	31300	417357	337206	4697	118.74	0.9	5.4	2.7	0.10
2003	1.4	33678	471934	382938	6735	107.31	0.3	5.3	4.7	0.10
2004	2.3	35914	565675	454542	8445	102.45	0.0	4.7	6.6	0.10
2005	1.9	36076	594905	514922	8469	117.45	-0.3	4.4	1.1	0.10
2006	2.2	35672	632911	566089	8953	118.78	0.3	4.1	2.8	0.40
2007	2.4	34318	839314	731359	9734	113.04	0.0	3.8	2.2	0.75
2008	-1.2	38559	810181	789548	10306	90.23	1.4	4.0	-2.9	0.30
2009	-5.2	39731	541827	513749	10494	92.10	-1.4	5.1	-	0.30
2010	3.9	42325	674054	606390	10962	81.48	-0.7	5.1	-	0.30

2. 한일경제관계의 역사적 개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수입수요(한국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계, 부품, 소재 등)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일본은 자본재(생산설비 등), 기술,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급원이 되었음.

-한국은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일본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일 의존적 경제구조가 심화됨.→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비탄력적(일본에 엄청난 수입)이고 경직성을 띤 형태로 고착되어 대일 무역불균형(만성적 대일무역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형성하게 됨

-향후 한일경제관계의 주요 명제는 종래의 수직적 분업구조, 일본의 일방적 우위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이 대등한 수평적 분업구조, 상호 협력적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것임.

3. 한일 통상 현황

(1)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국은 예외 없이 만성적인 對日무역적자를 누적시켜 왔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수지 악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한국의 對세계 및 對日무역수지추이 (단위: 통관기준 억 달러)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세계 무역수지	118	149	294	232	161	146	-133	404	412
대일 무역수지	-113	-190	-244	-244	-254	-299	-327	-276	-361

한일무역현황 (국제수지 기준; 백만 US \$)

년도	대일 수출 (A)	대일 수입 (B)	대일무역수지 (C)	(C)/총무역수지 (%)	(A+B)/총수출입 (%)
1965	44	167	-123	42.7	33.1
1966	66	294	-228	48.9	37.3
1967	85	443	-358	53.0	40.1
1968	100	624	-524	52.0	37.7
1969	133	754	-621	51.7	36.2
1970	234	809	-575	50.0	37.0
1971	262	954	-692	52.2	35.1
1972	408	1031	-623	69.4	34.7
1973	1242	1727	-485	47.8	39.8
1974	1380	2621	-1241	51.9	35.4
1975	1293	2434	-1141	52.0	30.2
1976	1802	3099	-1297	122.5	29.7
1977	2148	3927	-1779	232.9	29.1
1978	2627	5982	-3355	148.4	31.1
1979	3353	6657	-3304	62.5	28.3
1980	3039	5858	-2819	58.9	22.4
1981	3503	6374	-2871	58.9	20.8
1982	3388	5305	-1917	79.9	18.9
1983	3404	6238	-2834	162.2	19.0
1984	4602	7640	-3038	219.2	20.4
1985	4543	7560	-3017	353.7	19.7
1986	5426	10869	-5443	*	24.6
1987	8437	13657	-5220	*	25.0
1988	12004	15929	-3925	*	24.8
1989	13457	17449	-3992	*	25.0
1990	12638	18574	-5936	122.9	23.1
1991	12356	21120	-8764	90.8	21.8
1992	11600	19458	-7858	152.8	19.6
1993	11564	20016	-8452	540.4	19.0
1994	13523	25390	-11867	187.3	19.6
1995	17048	32606	-15558	327.7	19.8
1996	15767	31449	-15682	102.5	17.4
1997	14771	27836	-13065	154.6	15.2
1998	12238	16840	-4603	*	12.9
1999	15862	24142	-8280	34.6	15.2
2000	20466	31828	-11362	*	15.6
2001	16506	26633	-10128	*	14.8
2002	15143	29856	-14713	*	14.3
2003	17276	36313	-19037	*	14.4
2004	21701	46145	-24444	*	14.2
2005	24027	48403	-24376	*	13.3
2006	26534	51926	-25392	*	12.4
2007	26370	56250	-29880	*	11.3
2008	28252	60956	-32704	247	10.4
2009	21770	49428	-27658	*	10.4
2010	28176	64296	-36112	*	10.4

(2) 한일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양국의 입장

1) 일본측 입장

-한국의 對日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격차에 기인한다고 봄.

한국의 대일 수입품의 주종은 공업용 원자재, 부품, 기계류로서 한국은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함. 일본은 한번도 강제적으로 한국에 일본제품의 수입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인 접근보다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주장함 .

주요 선진 4개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추이

주요국가	수입규모 (억 달러)		수입비중 (%)	
	1998	2003	1998	2003
일본	111	216	42.4	54.3
미국	120	129	45.8	32.5
독일	19	37	7.4	9.4
영국	11	15	4.4	3.7

2) 한국측 입장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지속, 심화는 항구적 경제협력과 교역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로 인하여 한국민에게 대일무역적자는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고 한국내 대일 경각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한일 양국은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정신의 바탕 위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불균형의 시정에 노력해야 함.

-따라서 일본정부는 불균형의 시정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화 시대의 성숙한 동반자로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 노력을 보여줘야 함.

4. 한일 무역구조상의 문제점

(1) 교역상품 구조상의 특징

- 한국은 경공업에 특화하고 일본은 중화학공업에 특화한 분업관계를 형성.

*한국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등 중화학 공업제품은 1차의 수입에 따르는 부차적 수입(수반되는 중간재, 부품, 원료 등)이 많으므로 부차적, 후속적인 수입유발효과가 커지게 마련임.

- 반면, 한국의 대일 주종 수출상품이 수산물, 섬유류, 신발류 등의 1차산품과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제품은 첫째로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율이 낮고, 둘째로, 단순 노동집약적이므로 일본이 1차적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차례의 수입에 그쳐 버리며 그것으로 인한 유발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관세구조면에서 보면,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하여 결코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한국의 대일 주종수출품목인 농수산물, 섬유류, 신발류 등의 경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양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일 수출확대에 장벽이 되고 있음.

(2)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

-한국은 수출입 모두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편중현상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일본시장은 한국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반면, 일본은 전세계시장과 교역이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보지 않음.

일본의 국가별 무역 (2010년; 억\$, %)					
국별	수출		국별	수입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
총계	674054	100.0	총계	606390	100.0
중국	130867	19.4	중국	134087	22.1
미국	103853	15.4	미국	59076	9.7
한국	54609	8.1	호주	39127	6.5
대만	45996	6.8	사우디	31494	5.2
홍콩	37046	5.5	아랍에미레이트	25684	4.2
태국	29937	4.4	한국	25023	4.1
싱가포르	22093	3.3	인도네시아	24631	4.1

-따라서 한국의 무역, 경제는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경직성은 협상력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5. 한일간의 무역불균형과 기술협력의 중요성

-한일간에 수평적 분업체계(같은 산업 내에서의 동등한 수준의 분업)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예, 자동차 산업내에서 자동차 완제품 간의 상호 수출입; 자동차 부품의 상호 생산 및 교역) ①한국의 공업화 기술수준이 미진한 결과이기도 하고 ②일본경제가 자기 완성적 경제구조(one set economy) 때문임

*한국이 소재, 부품 및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의 규모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부품)을 공급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따라서 완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중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유발적 수출구조를 형성하게 됨.

*일본경제의 생산구조가 자급자족적인 one set economy로 발전하게된 이유를 일본 경제학자들은 지역경제권의 특징에서 찾고 있음. 즉, 서구(예, EU)의 경우에는 주변공업국가들이 비슷한 발달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지만 일본주변의 아시아 경제권에는 상호 협력할만한 공업국이 없어서 수평분업적 경제구조가 어렵고 일본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기완결적 생산구조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일간의 수평적 분업구조가 형성되려면 (교역의 축소균형보다 확대균형으로 지향하려면) 한일간의 기술협력이 관건이 됨.

*한일간에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려면 일본이 과감한 對韓 기술이전을 해야함

*한일간의 산업협력(상호분업체계의 형성)을 산업계가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

-기술이전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기업이므로 도입기술의 선정, 조건, 교섭 등 구체적 협의는 한일 양국의 기업 간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 간에 기술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협력태세가 갖추어 져야한다.

*Boomerang Effect와 일본의 기술협력 문제

韓 · 日 자유무역협정(FTA)

1.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단기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이 강화돼 전체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일 FTA를 체결한 뒤 1~2년 정도는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60억9000만 달러 늘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러나 일본 부품 가격이 떨어지는 등 우리 수출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무역수지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 한·일 FTA는 아시아의 FTA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 중인 일본이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국내 제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견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일 FTA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의 조기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세계 경제가 블록(bloc)화하는 상황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동북아시아를 묶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시발점이 한·일 FTA라는 판단이다.

3. 우리가 한·일 FTA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합쳐 인구 1억7000여만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일 FTA는 특히 한·칠레 FTA와는 달리 농업계의 반대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늘어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기계·철강·전자 등 공산품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관련 업계는 한·일 FTA의 조기 추진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종환(金琮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협력부장은 “정부는 향후 FTA 협상에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 등 산업 협력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교(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은 이에 대해 “한·일 FTA는 일본의 한국내 투자 증가와 부품산업 이전 등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함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가 한 단계 발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